



고등
독서

1 나를 기르는 독서

(1) 책의 선택과 자발적 읽기

확인문제

012~016쪽

1 ⑤ 2 ⑤ 3 ③ 4 ① 5 ⑤ 6 ④ 7 ② 8 ②

- 1 글쓴이는 『사회 생물학』을 읽은 후, 관련된 책들을 더 읽어 보고 싶은 지적 호기심을 느껴 『이기적 유전자』를 사서 읽게 되었다고 하였다.
- 2 『이기적 유전자』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한 책이다. 이 글에 따르면 나선 구조의 디엔에이는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생존해 왔으며,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도 몸속의 디엔에이를 보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생존 기계’로 지칭한 것으로 보아 인간만 유일하게 디엔에이를 보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3 글쓴이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은 후 자신의 삶이 이 책을 읽기 전과 후로 완벽하게 같았다고 말한다. 이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중간 1의 ④에 의하면 『이기적 유전자』를 읽은 후 ‘나’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졌다고 하였다.
 ② 중간 1의 ⑥에 의하면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난 후 세상의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는 희열을 느꼈다고 하였다.
 ④, ⑤ 중간 1의 ⑥에서 사회 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갑자기 공부해 왔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인간의 삶이 유전자의 관점으로 설명된다는 것에 혼란스러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 4 글쓴이는 삶의 의문을 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보았다. 니체나 쇼펜하우어와 같은 철학자들의 책을 읽어 보았으며, 동양 사상에도 빠졌다. 또, 절을 찾아다니며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기도 하였고, 글을 써 보려고 노력하였다.
- 5 글쓴이는 『이기적 유전자』를 처음 읽었을 때 그동안 가져왔던 의문이 명쾌하게 설명되는 느낌에 황홀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난 후 인간이 유전자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는 생각에 만사가 시시하게 여겨졌다. 하지

만 이러한 좌절감을 딛고 재해석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되새겼다.

- 6 글쓴이는 『이기적 유전자』를 재해석함으로써 좌절감을 극복했다. 인간의 삶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은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깨달음이 글쓴이에게 인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 7 글쓴이는 책을 읽고 좌절감에 빠진 학생들에게 자신도 동일한 감정을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조바심을 내지 말고, 그 책과 관련한 책을 많이 읽고, 관련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하면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 8 글쓴이는 자신의 유전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한 힘껏 노력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024~029쪽

01 ④ 02 ② 03 ③ 04 글쓴이는 수업

03 『이기적 유전자』는 영국의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쓴 책으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한 책이다. 이 글에 따르면 나선 구조의 디엔에이는 생존을 위해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왔으며,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존재 이유는 몸속의 디엔에이를 보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04 글쓴이는 우리로 치면 ‘축산학과’ 같은 과에서 어떤 교수님이 사회 생물학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수강 신청을 했고, 그 수업에서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사회 생물학』을 교재로 읽게 되었다.

05 글쓴이가 ㉔과 같이 느낀 이유는 책을 읽기 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고민을 하며 그때마다 다른 답을 냈었지만, 책을 읽은 후에는 모든 의문의 답이 명쾌하게 설명됨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06 『이기적 유전자』는 인간의 삶을 유전자의 관점으로 환원시켜 모든 것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것이 글쓴이에게는 기쁨이 되었지만 사회 과학자들에게는 좌절감을 주는 원인이 되었다.

07 ㉑의 앞 문장으로 보아 사회 과학자들은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이기적 유전자』는 사회 과학자들이 그동안 연구해 왔던 문제와 연구 성과를 유전자의 문제로 환원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연구에 대해 회의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08 이 글은 글쓴이가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문제를 느끼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이후 재해석을 통해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른 책들을 찾아보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독서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09 ㉔ 원고지를 붙잡고 글을 쓰는 노력을 기울인 것은 재수 시절 삶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였다.

㉑ ‘일장춘몽’은 ‘한 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즉,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노력하는 삶의 덧없음을 느끼고 좌절했을 때의 글쓴이의 심

15 글쓴이는 이 수필의 제목을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그 책’은 『이기적 유전자』를 의미한다. 또한 ‘글쓴이의 무엇’을 바꾸어 놓았는지 글 속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글쓴이는 한 권의 책으로 인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으며,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잡게 되었다. 따라서 ⑤에서 과거의 나를 이해하는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16 (다)를 통해 글쓴이가 『이기적 유전자』를 재해석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 행동의 근원은 유전자와 직결되지만 인간은 자유 의지에 의해 유전자의 일방적 지시를 극복해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기계만은 아니며,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이다.

17 (바)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유전자가 허락한 범주 내에서의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즉, 글쓴이는 노력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학생에게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기를 조언하는 것이 적절하다.

18 글쓴이는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 깨달음의 내용이 글쓴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글쓴이는 연구를 통해서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기계가 아니며,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19 ⑤ ‘경외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이므로 앞의 ‘무시하며’와 함께 쓰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근원’은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이나 원인’이라는 의미이다.

② ‘직결’은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않고 직접 연결됨’을 의미한다.

- 5 노승은 꾸뻘에게 마음공부를 열심히 잘했다고 하며, 꾸뻘의 행복에 대한 배움 목록을 읽어 내려간다. 기분이 좋아 보이는 노승의 표정에서 꾸뻘이 깨달은 일상적이며 소소한 행복의 배움에 공감하며 만족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④ '고매하고 친절한 노승에게 얼룩투성이인 초고를 내밀 수는 없는 일이었다.'라는 부분에서 꾸뻘이 생각하는 노승의 인물됨과 그를 존경하는 꾸뻘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② '창밖으로 중국의 아름다운 산들이 내다보이고'라는 부분에서 꾸뻘과 노승이 중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앞부분 줄거리에서 꾸뻘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음을 깨닫고 행복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6 노승은 꾸뻘의 수첩 원본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집중해서 꼼꼼히 읽는다. 그리고 진정으로 만족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짓는다. 노승은 읽기를 마치고 꾸뻘이 마음공부를 훌륭히 해냈으며, 모든 배움은 훌륭하다고 말하는데, 앞서 그의 태도와 미소를 통해 이것이 형식적인 칭찬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 7 노승의 말을 듣고, 꾸뻘은 깊이 감추어져 있는 진정한 행복을 지금 이 순간 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를 통해 노승이 꾸뻘에게 주려던 가르침을 짐작할 수 있다.

- 8 ㉠, ㉢, ㉤, ㉥는 모두 진정한 지혜, 근원적 행복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를 잊어버릴 때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 9 꾸뻘은 사원 앞에 서서 구름과 태양과 바람이 한순간 산과 어울려 노니는 것을 바라보며,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03 밀은 (다)에서 행복 개념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가정하고 있다. 첫째,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 그 자체이므로 인간의 발전은 삶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그 과정 역시 행복이라는 점이다. 둘째, 인간은 각각 자신만의 개성을 타고난다는 것을 전제로 인간의 발전은 각자 타고난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될 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04 밀은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갈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발전은 삶의 목표이자 동시에 그 과정도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타고난 개성대로 각자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술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밀의 관점에서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05 밀은 (라)에서 ‘그렇다면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세 가지 대답을 제시한다. (라)에서 지성을, (마)에서 감성을 그리고 (바)에서 도덕성을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06 노승은 꾸삐와 어떤 지적인 대화를 하거나 꾸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길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행복의 의미를 꾸삐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를 통해 꾸삐는 노승이 자신보다 삶에서 훨씬 많은 일을 겪었고, 대부분 시간을 명상하며 보냈기에 노승이 높은 경지에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꾸삐는 자신보다 높은 경지에 있는 노승이 행복에 대한 훌륭한 이론을 줄 것이라 기대했기에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다.

③ (마)에서 노승은 꾸삐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라 꾸삐가 침묵 속에서 스스로 깨우침을 바라고 있다.

⑤ (라)에서 꾸삐는 사원 앞에 서서 구름과 태양과 바람이 산과 어울려 노니는 것을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15 ‘사람들이 왜 뛰어난 지휘자가 되려고 하는가?’는 결국 ‘사람들이 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할까?’와 같은 맥락의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매슬로는 아래 단계의 하위 욕구들이 채워져야 상위 욕구에 관심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지만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매슬로의 이론을 전복시켜 자아 성취가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16 (가), (나), (다)는 ‘행복’이라는 공통된 화제를 모두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는 철학의 영역에서 설명하는 글로 표현하였으며, (나)는 문학의 영역에서 소설로 다루고 있다. (다)는 심리학의 영역에서 주장하는 글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나)가 ‘노승’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주장하는 글이라는 설명을 적절하지 않다.

17 (가)에서 밀은 인간은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갈 때 행복해진다고 설명하며, ‘자기 발전’이란 각자의 능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18 <보기>의 글은 행복이란 거창한 관념이나 도덕적인 지침이 아니며, 행복은 외부가 아닌 자신의 성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다)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는 행복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고차원적인 관념으로 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와 <보기> 모두 행복을 자신의 발전에서 찾고 있으므로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에서는 진정한 행복이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하였으므로 (나)와 <보기> 모두 행복을 내부에서 찾는다고 보아야 한다.

④ (다)에서는 행복이란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되어 존재한다고 했으므로 미래에서 찾는다고 볼 수 없다.

05 (라)에서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자유 의지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것이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준다고 한다. 이 사실을 깨달은 글쓴이는 인간에 대한 경외감과 기대를 갖게 된다.

06 글쓴이가 『이기적 유전자』를 읽은 그날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때부터 삶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책을 읽기 전에는 삶의 의문에 답을 찾지 못하여 그때마다 다른 답을 내렸다면, 책을 읽은 이후에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설명되는 느낌을 받는다. 즉 여러 가지 삶의 의문들에 명쾌한 답을 찾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07 (나)에서는 ‘그렇다면 밀이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자기 발전은 무엇일까?’ 등의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반면 (가)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는 문학, (나)는 철학, (다)는 심리학 분야의 글로 대상을 설명하는 목적을 지닌 것은 (나)이다.

② (가)와 (다) 모두 글쓴이의 서술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어 있으며, 인물들의 대화는 찾아볼 수 없다.

③ (다)에는 글쓴이가 경험했던 내용을 사례로 들고 있으며, (나)와 (다) 모두 연구 기관의 연구 결과가 인용되지 않았다.

⑤ (다)는 글쓴이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을 뿐 이를 용어 자체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08 글쓴이는 독자들에게 행복보다 명분을 중시하는 최근의 현상을 비판하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행복을 누적하는 현명한 방법임을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즐거움이며, 이것이 개인에게 행복이 될 수는 없는지 비판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09 쾌락주의자는 쾌락에

16 (다)에서 노승은 꾸뻔에게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근원적인 행복이란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를 잊고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될 때 존재하는 것임을 전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행복은 자주 찾아오지 않지만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으며, 세상에서 얻는 다른 모든 행복의 기본을 이룬다고 하였으므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7 (다), (라) 글은 꾸뻔이 여행 중 노승과의 만남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 내용을 다룬 소설이다.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은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적절한 방식이므로 (다), (라) 글을 읽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② (가), (나) 글은 행복에 대한 밀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철학 분야의 설명문이므로 ①, ②의 내용으로 독서 기록지 작성이 가능하다.

④ (다), (라) 글은 꾸뻔이 여행 중 노승과의 만남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 내용을 다룬 소설이므로 ④와 같이 가공의 인물들을 통해 작가가 말하려는 바를 추측할 수 있다.

⑤ (마)는 행복의 의미를 주장하는 글로 심리학 분야의 글이므로 ⑤의 내용으로 독서 기록 작성이 가능하다.

18 (가)에서 벤담은 물질적 만족을 기쁨의 원천으로 생각하며, 물질적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행복이라 여긴다. 반면, 밀은 물질적 만족은 본질적 가치의 달성에 도움이 될 때만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19 책을 읽은 후 다른 사람들과 교류적 독서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들의 관점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고 상대방을 비교해 보며 자신의 시야를 넓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친구들의 관점이 더 합리적임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

20 &

26 글쓴이는 (라)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는 같지 않은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바)에서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명분을 중시하는 태도로 행복을 놓치는 세태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가치 있는 삶보다는 행복한 삶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③은 (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②는 (바)에서, ④는 (나)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다.

27 ‘오컴의 날로 베어 낸다’라는 것은 불필요한 가정과 개념은 없애고 간명하게 설명함을 의미한다. 글쓴이는 행복도 ‘오컴의 날’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 결과 행복은 매우 구체적인 경험이며, 쾌락적 즐거움이 그 중심에 있다고 주장한다.

28 ‘일반인의 합리주의’는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정당한 선택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쾌락적 즐거움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씨이 교수의 초콜릿 연구에서도 68%의 학생들이 하트 모양 초콜릿의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크기가 더 큰 바퀴벌레 모양 초콜릿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인의 합리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29 ㉠은 ‘가치 있는 삶’으로,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잣대가 필요하며 이 잣대는 주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된다. 따라서 ㉠은 ‘타인의 평가를 우선시하는 삶’을 의미한다. 반면 ㉡ ‘행복한 삶’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를 우선시하는 삶’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성적에 맞게 의대 진학을 선택한 것은 타인의 평가를 우선시하는 삶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천문학을 선택한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우선시한 삶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하더라도 대기와 덜 섞이는 기상 조건이 되어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6 중간 ⑪에서는 지구 온난화가 미세 먼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설명하며, 날씨가 더워지면 나무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 기체를 뿜어낸다고 하였다. 이렇게 나무에서 배출된 유기 기체는 유기 탄소라는 에어로졸, 즉 미세 먼지를 만들어내는 물질이다.

7 중간 ⑫에서는 미세 먼지가 거꾸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나투보 화산 폭발을 예로 들며 설명하고 있다. 화산이 폭발하며 배출된 화산재와 가스들이 성층권까지 올라가 대략 5년 동안 머물러 있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흡수되지 못하고, 다시 반사되어 대기 온도가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8 미국 항공 우주국에서는 5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시차를 두고 같은 궤도를 따라 이동하게 하여 여러 대기 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대기의 흐름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9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연구하면 대기를 구성하는 화학 물질, 오염 물질, 미세 먼지, 온도, 기압 등을 측정하여 대기의 흐름을 분석하는 등 대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지구 환경 변화의 인과 관계는 인공위성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소단원 평가문제

086~091쪽

- 01 ④ 02 ③ 03 ⑤ 04 ④ 05 ⑤ 06 ② 07 ①
08 ④ 09 황사는 자동차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흙먼지가 일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흙이 많은 동아시아의 아주 건조한 땅에 강한 바람이 불어 하늘로 떠오른 흙먼지가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것이다. 10 ① 11 ⑤ 12 ① 13 ⑤ 14 ② 15 ①
16 ⑤ 17 고기압의 영향권일 때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적어 공기의 정체 현상이 심해지면서 미세 먼지 농도가 올라간다

④ (라)에서 세계 보건 기구(WHO)의 미세먼지 농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권위 있는 단체인 세계 보건 기구의 기준을 제시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부분이다.

⑤ (나)에서 여름날 냉장고에 있던 음료를 꺼내면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고, 추운 겨울 밖에 안개가 끼는 현상을 예로 들며, 초미세 먼지가 생성되는 원리인 응결 현상의 이해를 돕고 있다.

08 이 글에서는 초미세 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 물질로 이산화 황, 질소 화합물, 암모니아, 유기 기체를 들고 있다. 이산화 황은 여러 개가 달라붙어 황산이나 황산염을 만들어 내고, 질소 화합물은 서로 달라붙어 질산염을 만들어 낸다. 또한 암모니아가 여러 개 달라붙으면 암모늄이 생성되고, 유기 기체가 산화 과정을 거쳐 서로 달라붙으면 유기 탄소를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하지만 인산 나트륨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09 황사는 자동차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흙먼지가 일어 하늘로 올라가는 비산 먼지와 같은 원리로 발생하는데, 흙이 많은 동아시아의 아주 건조한 땅에 강한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하늘로 떠오르고,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것이다.

10 초미세 먼지는 초미세 먼지의 원인 물질이 여러 개 달라붙어 생성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때 하나의 종류의 화학 물질들이 여러 개 달라붙어 생성되는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 이산화 황이 여러 개 달라붙어 황산이나 황산염이 되는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화학 물질들이 달라붙어 발생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세계 보건 기구의 초미세 먼지 농도의 권장 기준은 $10\mu\text{g}/\text{m}^3$ 이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 내내 초미세 먼지 농도가 $20\mu\text{g}/\text{m}^3$ 을 넘는다고 하였다.

19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지구의 대기를 연구하는 것은 대기를 구성하는 화학 물질, 오염 물질, 미세 먼지, 온도, 기압 등을 측정하고, 대기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대기 변화 연구를 한다고 해서 화산 폭발을 막을 수는 없다.

20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와 가스 등 많은 양의 미세 먼지(㉔)가 성층권에 올라간 결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반사되어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게 된 것(㉕)이다.

21 ㉔의 '구성하는'은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루는'의 의미이다. 따라서 ㉔의 '이루는'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2) 추론적 읽기

확인 문제

094~098쪽

1 ④ 2 ① 3 ③ 4 ③ 5 ⑤ 6 ④ 7 ② 8 ① 9 ③

1 용산역 전철수 시절 일본인은 조선인보다 승진을 빨리 할 수 있고, 1년에 두 번 주는 상여금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하였으므로, 조선인과 일본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가 어렸을 때 부유하게 살다가 철도 부지 명목으로 토지를 총독부에 수용 당하게 되자 아버지가 병석에 눕게 되어 보통학교를 마치자마자 직장 생활을 해야 했다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② '나'가 일본인 상점에서 점원 노릇을 하다가 철도국 시험을 보아 용산역 전철수로 취직하게 되었다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③ 용

- 01 ② 02 ② 03 ⑤ 04 ② 05 ⑤ 06 일자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차별 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한 것으로 보아 '나'는 계획적이지 않은 성격임을 알 수 있다. 07 ② 08 ③ 09 ④ 10 일본인 형사가 '나'가 소지하고 있었던 한글과 한문이 섞인 편지를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1 ② 12 ③ 13 ② 14 ④ 15 ④ 16 ⑤ 17 ⑤ 18 ① 19 ③

01 이 글은 일왕 히로히토에게 수류탄을 던져 체포된 이봉창이 옥중에서 쓴 수기이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해 서술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서는 주로 어떠한 사건과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인물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글은 자신의 성장 배경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부터 시작하여 청년기를 거쳐 자신이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지기까지의 일을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④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는 그 곳이 어디인지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 감각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⑤ 글쓴이는 자신이 겪은 일과 그에 따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로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2 (가)에는 이봉창의 수기와 함께 발견된 문서, 수기가 발견된 경위 등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이봉창 의사가 옥중에서 수기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11 ‘나’는 이태왕 전하나 일왕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조선의 역사나 일본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하지 못한 자신을 반성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12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한일 합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활용하여 글 속의 ‘나’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13 이 글은 자신이 겪은 일과 그때의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쓴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은 고백적이며, 사실적인 성격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14 ‘나’는 오사카시에서 조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쓰루하시 부근의 비누 도매상에서 일본인 행세를 하며 점원 생활을 했다. ‘나’는 일본인 행세를 하기 위해 조선인들과는 교제를 완전히 끊고, 조카딸의 집에도 출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을 할 때에는 조선인들이 서투른 일본 말을 사용하거나, 오해를 사게 되어도 입을 다물고 보고만 있었다.

15 ㉠, ㉡, ㉢, ㉣은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고, ㉤은 조선인으로서 차별을 받으면서 느꼈던 감정이다.

16 친구인 박 군은 불경기이기 때문에 취직난이 심했던 오사카에 있는 ‘나’에게 상하이의 영국 전차 회사가 조선 사람을 매우 우대해서 채용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박 군이 처음부터 ‘나’를 독립운동에 동참시키기 위해 상하이로 올 것을 권유한 것은 아니다. 또한 ‘나’는 상하이에 와서 점차 독립 정신에 빠져들었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나’는 상하이의 영국 전차 회사가 조선 사람을 매우 우대하여 채용한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상하이로 향한다. 이를 통해 ‘나’가 취직자리를 얻기 위해 상하이로 향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는 임시 정부에서 단장인 백정선을 만나 일본의 실정을 알렸다. ‘나’는 교토 검속

래프에 따르면 초미세 먼지의 농도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그래프 1>은 1995년부터 2015년에 이르는 20년 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 역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② <그래프 2>에는 초미세 먼지 농도가 제시되어 있을 뿐, 그 변화 원인까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④ <그래프 1>과 <그래프 2>를 통해 각 물질의 농도 변화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이 인체에 더 유해한지는 알 수 없다.

⑤ <그래프 1>의 자료에 의하면, 1995년 $80\mu\text{g}/\text{m}^3$ 정도이던 미세먼지 수치가 2015년에는 $40\mu\text{g}/\text{m}^3$ 로 내려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50% 정도가 감소한 것이다. <그래프 2>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초미세 먼지의 농도는 $30\mu\text{g}/\text{m}^3$ 이고, 2015년의 초미세 먼지 농도는 $23\mu\text{g}/\text{m}^3$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25% 정도가 감소한 수치이다. 따라서 초미세 먼지의 감소 폭이 미세먼지의 감소 폭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04 검댕, 황산, 황산 암모늄, 해양 유기물은 초미세 먼지에 해당하므로 입자 지름은 $2.5\mu\text{m}$ 이하임을 알 수 있다. 황사, 해염 입자, 꽃가루는 자연 미세먼지에 해당하며 입자 지름이 $10\mu\text{m}$ 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은 $80\sim 100\mu\text{m}$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입자의 지름이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검댕, 황산, 황산 암모늄, 해양 유기물 → 황사, 해염 입자, 꽃가루 → 사람의 머리카락’ 순서임을 알 수 있다.

회를 얻지 못하고, 한때는 일본인으로 살기로 결심하였으나, 그마저도 거짓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져 후회한다(ㄱ). 그 후 조선인 이봉창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상하이로 건너가게 된다(ㄴ). 상하이에서 백정선을 만나 교토 검속 때의 원한을 상기하며 점차 독립 정신에 빠져들었다(ㄷ).

26 ‘나’는 쓰루하시의 비누 도매상에서 일하던 당시, 일본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일본 말을 한마디도 모르는 조선 여자가 물건을 사러 왔는데, 일본인 주인은 흠치러 온 것으로 오해하고 큰소리를 질렀다. ‘나’는 나서서 한마디 거들어 주면 일이 원만히 해결될 것을 알았지만 입을 다물고 보고만 있었다고 하였다.

27 ㉠는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면서 느껴야 하는 ‘나’의 고통을 의미하고, ㉡는 일본인으로 속이고 거짓으로 살면서 느끼는 ‘나’의 고통이다.

28 이봉창은 옥중에서 자신이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지기까지의 과정을 쓴 수기를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재판관을 받는 피고는 자신이 한 행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봉창 역시 자신이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지게 된 것이 조선인으로 차별을 받았던 자신에게는 정당한 행위였음을 이야기하고자 이 글을 썼음을 짐작할 수 있다.

29 그 당시 한국 언론은 조선 총독부의 검열을 받고 있었고 하였다. 따라서 이봉창 의사의 수기가 공개되었다고 해도 비중 있게 다룰 수 없었을 것이다.

3 새롭게 바라보는 독서

(1) 비판적 읽기

확인 문제

132~13

